

2020 대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새로운 전례주년을 시작하면서, 또한 새로운 대림시기를 시작합니다. 대림은 은총과 희망의 시기, 깨어있을 시기,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구원 능력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대림은 언제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선물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고대에서부터 교회는 영광스런 주님을 향하여, 세상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향하여 눈길을 향하게 할 필요를 느껴 왔습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은 대림 시기 교회의 탁월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필요한 양식을 찾고 있는 실업자와 굶주린 이, 병자의 침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인류 각자의 외침입니다.

대림 제1주일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마태 13,35.37). 지금은 수많은 불의와 불평등에 깨어있을 때입니다. 팬데믹의 결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수많은 실업자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시대의 표징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곤궁한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대림은 오직 인류의 가장 큰 열망과 연대함으로써, 가까이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희망으로부터, 삶과 뼈, 이름과 성을 지닌 이들의 희망으로부터만 기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인류가 하느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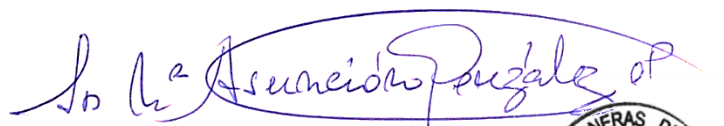
사랑하시고 우리가 준비시켜야 하는 인류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마도,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희망인지를 묻고 그 희망들을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며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구체적인 현실 위에, 이 구체적인 사람 위에 오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더 형제적인, 모두가 살기에 필요한 집과 음식을 가지고 인종, 사회 조건, 가난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인류를 건설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생명으로 가득한 현재와 미래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땅을 돌보고 우리가 서로를, 특히 가장 곤궁한 이들을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어머니 성모님의 손을 잡고 이 사순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희망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기쁘고 거룩한 대림 시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적 포용과 기도를 보냅니다.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iora General

